

특별기고

포천의 철도



김창웅
본지 시인위원

옛날 포천지도도 보면 청산면 초성리를 통과하는 경원선(서울-원산)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포천 보통학교 학생들이 서울로 수학 여행을 갈때면 송우리 회암교개를 넘어 덕정리에 가서 경원선을 타고 서울로 갔으며 해방 후에는 트럭을 타고 수학여행을 국민학생들이 다녀왔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비운의 개인 날이나 이른 새벽 고요할 때에는 동두천역이나 덕정역에서 울리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왕방산을 넘어와 포천읍내에 울려 퍼지던 포천 사람들은 기차에서 울리는 기적소리에 대한 동경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로 기차 한번 타고 서울구경 가봤으면...' 경원선은 223.7km 길이의 철도로 1905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군사상 경원선용 철도

부설권을 요구하여 당시 대한제국의 승인을 얻어 동년 11월에 (용산과 원산 사이에) 기공식을 갖고 1910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이관되어 1914년 개통되었다. 8715해방이 되자 경원선이 38선에 가로막혀 초성리까지 운영되었으나 수복되어 지금은 소요산까지 복선 수도권전철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북은 신탄리까지 국철이 운행되고 있다. 우리 고향 포천은 경원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었으나 양반님네들의 반대로 통과를 저지당하는 여론에 봉착하여 경원선이 축척량을 넘지 못하고 덕정리를 거쳐 동두천으로 다시 철원으로 향했다는 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 양반님네들이 편리한 철마를 마다 했겠는가? 다만 축척량이나 천마산 등의 터널을 뚫는 공사가 막대하여 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포천을 기차철도가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포천 2대 윤성순 국회의원이 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자 포천의 철도부설 공약을 내걸었으며 교통부 직원들이 철로부지 측량까지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철도는 부설되지 않았다. 그후

수도없이 철도부설을 공약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나 모두 공약(空約)이었다. 그동안 경원선은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전철 의정부 연장공약이 실현되고 동두천을 지나 소요산까지 수도권 전철이 복선화되어 최신형 전동차가 뚝뚝 달리고 있는가 하면 국철 경원선도 신탄리에서 북으로 연장 월정사역에서 금강산 절경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철원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고 있다. 요즘은 포천.연천출신 국회의원들의 포천철도 연장설이 또 정치 계절풍을 타고 봄부터 심심하게 떠돌고 있다.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을 배출한 우리 포천이어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허위공약 남발죄로 고발하여 죄와 벌을 내리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자 가운 타고 유류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수도권을 누비면 되지 무슨 잡과대 같은 소리냐?' 하면 말문이 막힌다. '내가 자신은 없어도 포천에다 철도를 부설한다고 하면 의원선 거머 많은 표를 얻어 전국최대

특료로 의원뺨치들라고 최다선 국회의원의 관록과 권위를 자랑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 하였다면 큰 오산(謬算)이다. 구체적인 포천철도부설안을 공약을 내걸고 국회의원 입후보를 한 후보가 있었으며 선거는 끝났다. 수도권 전철을 의정부까지 연장 공약을 했던 박모 의원은 우리는 언제까지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포천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시민의 발인 철도부설이 가능할까? 지하철(고령도, 사금, 흑연, 형석, 온천수) 개발이나 관광시설, 개인자카용 비행장설치, 5대 국공립 사업대우지, 최고품질 웰빙타운건설 등등 철도를 놓지 않고는 안 되는 조건을 갖추는 일이 급하지 않을까? 88올림픽 성화도 봉송로에서 제외된 우리고향 포천이었다. 온 시민이 분발하여 철도유치 작전에 총 매진하여 200년이래 철도부설의 꿈이 무산된 한을 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내 최초 한과박물관 개관

50억 투자 전통한과 체험 및 예절교육원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소재한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이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5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은 관장을 비롯해 경기도 김기태 경제능직국장 등 1천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천 아람유치원 원생 35명이 한과 만들기 체험을 했다. 한가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과를 테마로 세워진 전문 박물관으로 한과의 역사를 보여주는 400㎡ 규모의 전시관, 다양한 한과를 직접 만들고 배워볼 수 1200㎡

규모의 교육관 및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예절교육, 공예교육,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층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한가원 개관의 총 예산은 국,도,비 보조 24억8천만원을 포함해 총 50억원이 소요됐다. 한과 만들기를 전직으로 알고 30년 외길 인생을 걸었던 김규은 한과문화박물관장(한과 명인 국가 지정 제26호)은 "어릴 적 입맛이 평생을 간다는 생각으로 한가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천의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소재한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이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5일 개원식을 가졌다.

리잡을 한가원은 대중에게 우수한 우리 전통 식문화인 한과를 제대로 알리는 한편 우리 과거가 세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한과마을 탄생의 역사**
포천시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과 한과시장 확대 및 한과의 위상 변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전통 한과를 지역 특산품으로 집중 특화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아래 2004년 12월 (주)전통한과마을사업단을 탄생시켰다. 포천한과마을을 조성사업에는 포천 지역 내 11개 한과업체 가운데 신공전통한과·포천한과·유창제과·한울제과·성진한과 등 5개 업

체와 대진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연·관·농의 유기적 협력을 자랑하고 있다. ▶**웰빙 이미지 부각**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한과가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어느 때보다 인정받고 있다. 한과에는 화학첨가물이나 인공색소 등을 넣지 않고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웰빙식품을 지향하는 대중의 트렌드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중국에는 FTA로 타격받은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 준다는 점에서 이번 한과문화박물관의 개원은 주목되고 있다. ▶**일상 건강식품**
한과 중 대표적인 과자인 유과는 찹쌀을 천연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과 같이 소화를 돕는 효

소를 가지고 있어 위나 장의 기능을 돕는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과는 곡물가루에 꿀과 엿 등을 넣고 반죽해 기름에 지지기도 하고, 과일, 열매·식물의 뿌리 등을 조이거나 버무린 후 굳혀서 만든다. 과일이 나지 않는 계절에 과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조과(造果)라고도 부르던 것을, 서양과자(洋果)와 구별하기 위해 '한과(韓果)'라 부르기 시작했다.

취재파일

수입쇠고기 시장 개방 축산농민의 한숨

포천축산 농가 3중고 벼랑끝으로 몰려
사료값 인상 조류독감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하승원 본지 취재국장

사료값 인상과 쇠고기 수입,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포천시 축산농가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포천지역 축산농가는 2006년 기준 한(육우) 579농가 9천405두, 젓소 343농가 1만7천239두, 돼지 228농가 24만9천860두, 닭 232농가 5백57만8천820수, 마필 9농가 241농가, 산양 53농가 1천672농가, 사슴 133농가 1천571농가, 토끼 35농가 4만2천499마리, 개 2천280농가 3만4천715마리, 오리 27농가 3만8천829수 등이 있다.

포천축산 농가는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육우)의 경우 닭 사육은 경기도내 1위(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 3위, 한(육우) 5위, 젓소 5위 등으로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포천축산 소득은 전체 농업소득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옥수수과 콩가격이 상승하면서 배합사료가 크게 올라 소와 돼지도 줄어야 할 판이 됐다.

지난해(2007년) 한 포대에 7-8천원 하던 사료값이 현재는 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대비 사료값이 무려 40% 이상 인상됐다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의 협상 타결로 한우 값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3월) 암소 한 마리가 490만원대였으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40만원 이상 떨어졌다. 암송아지는 2007년도에 비해 65만원 이상 떨어진 1백6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은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양기원 축협장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게 되면 돼지고기 소비층이 수입쇠고기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를 고급화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고급육에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양기원 축협장은 수입쇠고기를 유통시장에만 팔기는 게 아니라 군남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양계산물(가금류)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값이 올랐던 오리전문 식당에서 하루에 오리를 50마리씩 팔던 식당에서 지금은 잘해야 5마리를 팔 정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더 큰 문제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선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사료값을 인하해야 하지만 사료의 주 원료인 곡물류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료값을 인하

할 수 없다는 게 축협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사료값 인상은 축산업 경영비를 늘어난 반면 축산물 가격은 하락과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즉 가축을 사육하면 사육할수록 손실이 커져 국내 축산시장의 위기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있다는 게 축산업계의 판단이다. 이처럼 어려운 실정에서 축산물 소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류독감이 전국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축산농가들이 감당해야할 어려움과 시련 극복이 얼마나 힘겨울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의 특별구매자금을 전국 지자체에 배정,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축산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정부가 3%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인데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감과 위기 타개, 그리고 극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스럽다.

포천시 축산농가에 배정된 축산농가 지원되는 예산은 137억4000만원이다. 사료값 지원을 신청한 축산농가는 240여농가에 금액만 하더라도 250억원이다. 다시 말하면 그나마 생색내기용이지만 신청농가 60%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료값 지원이 농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3%저리 융자금이기는 하지만 상환기간이 1년이다. 무슨 방법으로 1년에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관계 당국의 무성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축산농가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사료원료를 100%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업체는 또 다시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송비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상 사료값은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몫이 된다.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급육을 브랜드화 시킨다면 수입쇠고기와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일본의 경우 소 한 마리에 1억 원이 넘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비싼 쇠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축산농가의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관련 경쟁력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의 말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점을 넘어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축산농가들이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말 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값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부실한 정부 당국의 정책이 축산농가를 벼랑끝으로 내 몰고있다.

제3회 의정부시무용단 정기공연 및 제7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국내참가작품

‘두드리 GO’

DoodRI Go!



가장 한국적인 작품이 세계적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정서와 열이 담긴 우리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펼쳐오고 있는 의정부시무용단이 이번 2008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와 더불어 제13회 의정부시무용단 정기공연에 '두드리GO!'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작품 '두드리GO!'는 제1부 '동심'에서는 동두천시립이담동물단과 함께 한국의 신명나는 가락과 전통춤사위를 선보이고 제2부에서는 두드락과 함께 우리춤을 기본으로 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몸짓을 통해 강렬하고 웅장한 퍼포먼스로 짜릿한 소리와 몸짓의 향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한국의 신명난 소리춤판을 감상하시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중히 초대합니다. 의정부시무용단장 이미숙 올림

- ▶ 일시 : 2008년5월15일(목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 주최 및 주관 : 의정부시무용단
- ▶ 협찬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 ▶ 후원 : 의정부시, 경기문화재단,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 ▶ 문의 : 031)877-8891, 011-712-6813

▶ 기획의도 : 매년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행해지는 국제음악극축제에는 많은 해외공연단체와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대중들이 이를 즐기 위해 정복로 모여들고 있다. 올해 7회째 맞이하는 국제음악극 축제에 한국 전통타악기를 현대 모악 '두드리GO!'란 타이틀 아래 요즘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정당과 리듬에 현대적인 몸짓과 감각을 접목시켜 더욱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공연으로 '세계로 나아가자!'란 의미와 더불어 한자로 두드리고 (敲)는 '복을 두드리자'란 의미로 신명나게 복을 두드리며 세계로 나아가자는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지구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이며,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무대예술로서의 요소들 두루 갖추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작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프로그램
-1부 동심 : 한국의 풍물놀이를 기본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장단과 리듬에 맞추어 신명나는 우리가락과 전통적인 춤사위로 동두천 시립이담동물단과 함께 하는 무대이다. 태평소와 사물악기에 맞추어 오방의 복소리, 설경고 놀이, 소고놀이와 북춤 등이 어우러지고 풍물놀이의 모미인 상모놀이로 무대에 꽃을 피운다.
-2부 두드림 : 두드락(Dood Rock)과 함께 하는 무대! 한국적 리듬과 비트를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다양한 소리와 몸짓,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퓨전무대이다. 우리의 한국적인 리듬을 음악적으로 재구성하여 여기에 다양한 퓨전악기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우리 춤을 기본으로 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몸짓을 통하여 강렬하고 웅장한 퍼포먼스로 짜릿한 소리와 몸짓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